백운산 치유의 숲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다양한 숲길 조성·체험프로그램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문객 급증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 어때요."

광양시는 시 휴양림사업소가 운영하는 '백운산 치유의 숲'이 전남 대표 웰니스(wellness)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재)전남관광재단이 웰니스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남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매년 공모해온 사업이다.

백운산 치유의 숲은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걸音(음) 두걸音(음)', '다福(복) 다福(복)', '여우野(야)! 놀자' 등 체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 속에서 머무르며 힐링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치유의 숲을 방문한 체험객이 개장 이래 가장 많은 3022명으로 집계됐으며 기업체와 학교 등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방문객의 예약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곳에는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로 어우러진 '봉황돋움길', '돼지꿈길' 등 6코스 총 10㎞의 산림치유 숲길과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백운산 치유의 숲에는 또 '2020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치유의 숲 놀이터'도 있어 어린이 방문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기섭 광양시 휴양림사업소장은 "백운산 치유의 숲이 전남 대표 치유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백운산 치유숲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체험료는 개인 5000원, 단체(15인 이상) 4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백운산 치유의 숲의 찾은 탐방객들이 휴양림사업소에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곡성의 맛, 밀키트로 즐겨요"

곡성군은 지난 16일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 컨설팅을 시작으로 밀키트 개발에 나섰다.

곡성군 캠핑객 겨냥 개발 나서 13개 음식점 참여…7월 판매

곡성군이 지역 음식에 대한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밀키트 개발에 나섰다.

16일 군 레저문화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에는 지역 음식점 13개 업체가 참석해 강레오 셰프로부터 밀키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 특히 업체마다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패키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캠핑 이용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밀키트 개발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음식점의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어 지역 캠핑장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캠핑객들은 야외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지역 유명 음식들을 캠핑장에서 쉽게 즐길 수 있고, 음식점들은 매출 증대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참여 음식점을 모집했다. 그 결과 25개 음식점이 신청했으며 그중 곡성군 요식업협회장과 지역 주요 캠핑장 대표 4명 등의 심의를 거쳐 13개소를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에 앞서 해당 업체들은 지난 4월 곡성레저문화센터 대황홀에서는 밀키트 제작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6월에는 참여 음식점, 캠핑장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완제품 최종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휴가철이 시작하는 7월부터는 배달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캠핑장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밀키트 외에도 군은 지역 음식 특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명 유튜버 쯔양 등을 통해 석곡흑돼지 숯불구이를 전국에 알렸고, 흑돼지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깨비정식'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맛을 알리고, 지역 음식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키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군 '웅치올벼쌀' 향토산업 집중 육성 즉석밥·쌀과자 등 연관제품 개발

보성군이 지역 농·특산물이자 향토자원인 '웅치올벼쌀'〈사진〉을 향토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웅치올벼쌀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성군은 웅치올벼쌀사업단과 협력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제품개발·인력육성·홍보마케팅·판로구축·생산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누룽지, 즉석밥, 쌀과자, 펌핑올벼쌀 등 연관제품 개발과 웅치올벼쌀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웅치올벼쌀 사업단은 최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보성 세계차(茶) EXPO'에 참가해 '올벼누룽지 피자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복내중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올벼누룽지 피자만들기 체험'을 추가해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중이다.

송지영 보성웅치올벼쌀향토사업단 사무국장은 "보성웅치올벼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벼 농산물이자, 우리 보성군의 향토자원인 데 비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올벼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 5000만원 찾아 가세요

여수시 5월 '일제정리 기간' 운영

여수시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901건에 총 1억 5000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한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자 전원 통지서 재발송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수시 세정과로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또는 전화(061-659-3530)로도 신청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 저전골 양성교육 수료식 마을정원 도슨트 23명 배출

순천시는 최근 저전나눔터에서 도시재생 대학 '저전골 마을정원 도슨트 양성 교육' 수료식〈사진〉을 개최했다.

'저전골 마을정원 도슨트 양성 교육'은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 조성된 마을정원의 코스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주민 정원 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이다.

교육은 지난 3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저전골 마을정원 스토리텔링 ▲순천만 국가정원 해설 탐방 ▲마을 정원 도슨트의 이해 ▲정원 해설 시나리오 작성 ▲정원 투어코스 발굴 및 현장시연 스피치 교육 등 다양한 실습 및 실전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23명의 마을정원 도슨트를 배출했다.

정원 도슨트들은 앞으로 순천시 도시재생 저전동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로서로정원비법학교 2기 ▲우리동네 경관 규약 작성 워크숍 ▲저전골목길 마을정원 축제 정원투어 등에 참여해 정원해설뿐 아니라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정원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